

LG전자 “주말 낮, 가전 사용하면 전기료 돌려드려요”

한전과 ‘스마트가전 캐시백 사업’ 추진
오는 9월~10월, 오전 11시~2시 운영
전력 사용량 1kWh당 100원 환급
LG씽큐와 연결된 4종 가전 대상

LG전자가 한국전력과 손잡고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을철 주말 낮 시간대에 세탁기·건조기 등 가전제품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돌려주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기존 에너지 캐시백이 전력 사용량 절감에 혜택을 줬다면, 이번 사업은 가전 사용을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27일 LG전자는 전날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과 ‘스마트가전 캐시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된다. 해당 시간대 LG전자 가전을 사용하면 전력 사용량 1킬로와트시(kWh)당 100원을 돌려받는다. 시간당 최대 인정 사용량은 3킬로와트시로, 환급액은 최대 300원이다.

대상되는 가전제품은 LG 씽큐에 연결



LG전자가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 한전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과 ‘스마트가전 캐시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국전력 이정호 고객서비스혁신본부장, LG전자 노범준 HS AI솔루션사업개발담당, 삼성전자 전승수 B.IoT 개발그룹장.

/LG전자

된 세탁기와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등 4종이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결합한 위시타워와 위시폼보도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에너지 절약 정책인 ‘슬기로운 전기생활’의 일환 중 하나다. 정부는 당시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확대와 여름철 최대전력 수요 시간대 추가 캐시백, 가을철 스마트 가전 캐시백 등 3개 사업을 추진했다.

스마트가전 캐시백은 전기를 적게 쓰

는데 초점을 맞춘 기존 제도와 달리 전력 사용 시점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로 가전 사용을 유도해 생산된 전력을 활용하고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행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정뿐 아니라 산업용 전력과 전기차 충전에도 낮 시간대 사용을 유도하는 제도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산업용 전력은 9~10월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 전력량 요금을 할인하고, 전기차 충전도 같은 시간대 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한다.

기존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올해 확대됐다. 정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직전 2개월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1% 이상 전기를 절감하면 절감량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시간대별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 계량기(AMI)가 설치된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평일 오후 5~8시 전력 사용을 줄이면 별도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스마트가전 캐시백 참여 고객은 한국전력의 에너지 캐시백 서비스를 신청한 뒤 LG 씽큐 앱에서 서비스를 연동하면 된다. 환급액은 한국전력 에너지 캐시백 서비스를 통해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한편, LG전자는 가전과 씽큐를 연계한 에너지 절감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에어컨 희망온도를 정부 권장 냉방온도인 26도로 설정하도록 장려하는 ‘씽큐 26도 챌린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metro



소공연, 취약계층 소상공인 가족 지원

소상공인연합회는 세이브더칠드런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왼쪽 3번째부터)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 송치영 소상공인 회장 등이 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공연



대우건설, 베트남 산업부 장관과 면담

대우건설은 지난 26일 정원주 회장이 방한 중인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원전 및 LNG 터미널 등 에너지 분야 사업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수요일 서울 을지로 더그랜드 롯데 서울에서 만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오른쪽)과 레 마잉 흥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

/대우건설

LG U+, 디지털고객경험 이통사 1위

통합 고객 앱 ‘유플러스 원’
생활형 플랫폼으로 진화

LG유플러스는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2026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 이동통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고객경험지수는 고객이 기업의 디지털 채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전반의 경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이동통신 부문은 2024년 처음 평가가 도입됐으며 LG유플러스는 첫 평가 이후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수상의 배경에는 통합 고객 앱 ‘유플러스 원’이 있다.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 원’을 중심으로 고객이 요금 조회와 상담 등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방문하는 앱을 넘어, 혜택과 콘텐츠를 함께 이용하는 생활형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며 디지털 고객 경험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유플러스 원’에서는 요금 조회·납부, 요금제 변경, 로밍 가입, 멤버십 이용 등 주요 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셀프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사용자 경험을 지속 개선했다. 또한 고객의 이용 여정을 분석해 요금 조회·납부, 데이터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인증수여식에 (왼쪽부터) 김원기 LG유플러스 디지털CX트라이브 담당, 문동민 한국표준협회 회장, 방옥재 LG유플러스 디지털플랫폼개발팀 담당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리, 가입 서비스 확인 등 핵심 기능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

대표 사례로는 가족 통신 서비스 관리 기능이 있다. 고객은 앱 내에서 자녀의 요금 조회·납부, 선택약정 관리, 분실신고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도 이번 수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LG유플러스는 U+one 내 AI 검색 기능을 고도화해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챗봇·콜봇과 AI 상담 지원 기능을 활용해 고객 문의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msjo@

KAI, ‘항공우주논문상’ 공모전 접수

내달 24일까지 접수 진행
시상금 확대, 채용혜택 제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항공우주 분야 인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논문 공모전의 시상 규모를 늘리고 채용 혜택을 제공한다.

KAI는 지난 24일부터 ‘제24회 항공우주논문상 공모전’ 논문 접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접수는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기계, 소재·공정, 전자·전기, 소프트웨어(SW), 정책·경영 등 5개다. 유무인복합체계(MUM-T), 미래 SW, 차세대 플랫폼, 우주 솔루션, 미래 비행체(AAV) 등 KAI의 미래 사업 분야를

다룬다.

올해는 시상금도 확대했다. 최우수상인 우주항공청장상과 KAI CEO상은 각각 1명에게 1000만원씩, 우수상은 2명에게 500만원씩 지급한다. 전년보다 최우수상은 각각 500만원, 우수상은 각각 100만원 늘었다. 수상 논문의 주저자에게는 KAI 신입사원 공개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논문은 KAI와 한국항공우주학회가 공동 심사한다. 수상자는 오는 11월 초 발표하고 같은 달 말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KAI 항공우주논문상은 민간기업이 20년 넘게 주관해 온 항공우주 전문 공모전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항공우주학회가 후원한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

메인비즈協, ‘中企 경영혁신 대상’ 8곳 선정

에스비선보 등 8개사, 중기부 장관상

메인비즈협회가 ‘2026 중소기업 경영혁신 대상’ 수상기업으로 에스비선보, 제이피이노베이션, 한중엔시에스, 클라비, 파마비전, 메타톤, 신비바이오, 에스티엔 8개사를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이 돌아간다.

27일 메인비즈협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작한 ‘중소기업 경영혁신 대상’은 혁신적 경영활동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공모전으로 혁신

성·성장가능성·시장경쟁력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발했다.

올해 선정한 기업들은 생성형 AI, 탄소포집(CCUS), 반도체 장비, ESS,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 IP, 스마트시티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높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협회는 오는 11월 19일 ‘2026 중소기업 혁신주간(K-INNO WEEK)’을 통해 수상기업의 성장을 돕는 투자 유치 및 판로 확대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공영홈쇼핑, AI 활용 안전보건관리 강화

27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AX전환의 일환으로 안전보건관리 플랫폼 ‘세이프’를 도입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시설점검, 안전교육 등 관련 문서를 수기로 관리했지만 이번 도입을 통해 앱에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공영홈쇼핑



에쓰오일, 창립 50주년 ‘스폰서데이’

에쓰오일(S-OIL)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주유소·충전소 대표자와 야구팬들을 만나 고객 소통을 강화했다. 에쓰오일은 지난 26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주유소·충전소 대표자들을 초청해 시구 행사와 현장 이벤트로 구성된 ‘에쓰오일 스폰서데이’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에쓰오일



함사우트글로벌, ‘SABRE 어워즈’ 수상

함사우트글로벌은 지난 1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6 SABRE 어워즈’에서 아시아 부문 최고 영예인 ‘올해의 에이전시(Agency of the Year)’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수상은 글로벌 네트워크 대행사들과의 경쟁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함사우트글로벌

